



로스앤젤레스에서 만나는 THE GOLDEN RATIO MUSICAL SHOW

4 일간 펼쳐지는 빛과 소리의 향연

아름다움을 정의하는 수학적 공식을 예찬하는

토키오 마이어스의 오리지널 교향곡

예거 르쿨트르가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로스앤젤레스에서 THE GOLDEN RATIO MUSICAL SHOW 를 선보입니다. 탁 트인 공간에서 풍성한 영감을 선사하는 화려한 빛과 소리의 향연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이끌리는 미적 조화를 정의하는 고유의 수학 공식인 황금비율을 예찬합니다. 혁신적인 영국인 뮤지션 토키오 마이어스(TOKIO MYERS)는 Made of Makers 프로그램을 통해 예거 르쿨트르의 의뢰를 받아 쇼를 위한 새로운 사운드트랙을 작곡했습니다.

새로운 문화적 맥락에서 선보이는 디자인

예거 르쿨트르는 THE GOLDEN RATIO MUSICAL SHOW 를 통해 디자인과 워치메이킹을 주제로 한 문화적 대화를 더욱 폭넓게 확장하며, 20세기 디자인의 아이콘으로 널리 사랑받는 리베르소 시계의 관점에서 두 분야의 특별한 관계를 탐구합니다. 게스트들은 이번 쇼를 위해 특별히 디자인된 1931 시네마에서 리베르소가 태동했던 아르데코 시대의 스타일과 분위기에 흠뻑 빠져드는 독특한 경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감성을 품은 1931 카페에서는 음료와 함께 더욱 풍성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산타모니카 대로에 자리한 웨스트필드 센추리 시티(Westfield Century City)의 탁 트인 공간에 조성된 아웃도어 컨셉은 1933년 오픈하여 미국 대중 문화에 새로운 형태의 엔터테인먼트로 깊숙이 자리잡은 세계 최초의 자동차 영화관에 경의를 표합니다.

마음을 사로잡는 빛과 소리의 향연

1931 시네마의 주인공인 THE GOLDEN RATIO MUSICAL SHOW 는 낙하하는 물의 거대한 스크린에 투사되는 화려한 빛과 소리의 향연을 선보입니다. 10분간 진행되는 이번 쇼는 4개의 챕터를 통해 자연을



관찰하는 과정과 가장 아름다운 형태들을 연결하는 은밀한 하모니에서 시작하여 아름다움이 지닌 신비로운 속성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 그리고 아름다움이라는 미학을 정의하기 위한 탐구를 통해 발견한 수학적 공식 1.618, 파이(ϕ)로 이어지는 황금 비율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또한 ‘황금 숫자’ 또는 ‘신성한 비율’이 문화의 역사, 건축, 예술에 미친 영향을 탐구하고, 마지막으로 아르데코 사조가 절정에 달했을 당시 황금비율의 정신을 잘 나타내는 리베르소를 소개하며 이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특별한 의뢰를 통해 탄생한 토키오 마이어스의 사운드트랙

THE GOLDEN RATIO MUSICAL SHOW 를 위해, 예거 르쿨트르는 최근 가장 독창적인 아티스트로 부상하며 전 세계적인 명성을 누리고 있는 영국의 뮤지션 겸 작곡가 토키오 마이어스에게 사운드트랙을 의뢰했습니다. 왕립음악대학 졸업생으로 클래식 음악과 영화 음악, 힙합, 댄스, 90년대 소울 장르 및 다른 요소들을 실험적으로 조합해낸 작품으로 잘 알려진 토키오 마이어스는 피아노와 퍼커션에도 뛰어난 재능을 지니고 있으며, 다양한 장르에서 역동적인 매력을 발산하는 퍼포머이기도 합니다. 그는 시대와 장르를 초월하는 곡을 통해 과거와 현대 음악 사이의 대화를 이끌어내고 클래식 음악의 가능성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토키오 마이어스는 스위스 쥐라 산맥에 위치한 예거 르쿨트르 매뉴팩처에서 보낸 시간에서 영감을 받아 “디지털 프로젝션의 감정적 영향을 증폭시켜 줄” 새로운 곡을 작곡했습니다. 그는 이 곡을 “청중을 강렬한 여정으로 안내하는 4 개의 챕터 또는 악장으로 구성된 짧은 교향곡”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숫자 1.618 을 분당 161.8 비트의 템포로 구현하며 황금 비율 테마를 한층 강조했습니다. “저는 곡 전체를 이끄는 템포에 황금 비율을 녹여냈습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템포였는데, 정말 즐겁게 작곡하기 좋은 매력적인 템포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월드 투어의 첫 번째 무대

상하이에서 데뷔 무대를 선보인 THE GOLDEN RATIO MUSICAL SHOW 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월드 투어를 시작합니다. 이번 이벤트는 6 월 22 일 초청을 통해서만 만나볼 수 있는 갈라 형식으로 공개되며, 토키오 마이어스는 이 자리를 통해 그의 사운드트랙을 라이브 공연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후 그는 미국과 유럽의 우수 오케스트라에 소속된 세계적인 뮤지션 공동체로서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 활동 중인 명성 높은 L.E.오케밴드(L.E.Orchband)와 함께합니다. 그 뒤를 이어 토키오 마이어스의 다른



작품으로 구성된 콘서트가 이어지고, 특유의 시그니처 조명이 함께 등장하여 그의 솔로 공연에 역동적인 매력을 더해 줍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쇼가 펼쳐지는 6 월 22 일부터 25 일까지 1931 시네마가 대중에 무료로 공개되어 완전히 새로운 문화적 맥락에서 디자인과 워치메이킹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펼쳐집니다. 시네마는 오전 10 시부터 오후 10 시까지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으며, THE GOLDEN RATIO MUSICAL 쇼는 오후 7 시부터 오후 10 시까지 20 분 주기로 진행됩니다.

1931 시네마와 THE GOLDEN RATIO MUSICAL SHOW 는로스앤젤레스를 시작으로 남은 2023 년 동안 런던과 두바이에서 순회 공연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토키오 마이어스 소개

자메이카의 유산을 이으며 런던에서 출생한 토키오 마이어스(본명 Torville Jones)는 “음악과 춤, 개인의 표현을 매우 중요시하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9 살 때 아버지로부터 받은 중고 전자 키보드에 “완전히 집착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왕립음악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뛰어난 재능을 선보였습니다. 토키오 마이어스는 2017 년 *브리튼즈 갓 탤런트(Britain's Got Talent)*에서 우승하고 사이코 엔터테인먼트(Syco Entertainment)의 사이먼 코웰(Simon Cowell)과 녹음 계약을 체결하면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2018 년, 데뷔 앨범 *Our Generation* 을 발표하여 영국 공식 앨범 차트에서 4 위에 올랐고 전설적인 로버트 마일즈(Robert Miles) 이후 처음으로 피아니스트로서 GOLD 인증을 받았습니다. 토키오 마이어스는 칸예 웨스트(Kanye West), 고(故) 에이미 와인하우스(Amy Winehouse), 스팅(Sting), 존 레전드(John Legend), 소울 펑크 밴드 미스터 허드슨 & 더 라이브러리(Mr. Hudson & The Library), 2 첼로스(2Cellos) 등 많은 아티스트와 작업했습니다. 그는 클래식 브릿 어워즈(Classic BRIT Awards)에서 '올해의 신예 아티스트(Breakthrough Artist of the Year)'를 수상했으며 영연방 경기 대회(Commonwealth Games)의 공식 축가를 제작했습니다. 토키오 마이어스의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 아레나에서의 쇼를 포함해 영국 투어와 국제 쇼는 모두 매진되었으며 그는 두바이의 세이크로부터 버즈 알 아랍(Burj Al Arab)의 공식 오프닝 공연에 초청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작년 말 카타르 월드컵에서 FIFA 를 위한 두 건의 헤드라인 쇼에 초청받았습니다. 그의 솔로 피아노 앨범은 올해 말에 발매될 예정이며 그의 두 번째 일렉트로닉/시네마틱 앨범인 *Our Generation II* 는 2024 년 초에 발매될 예정입니다.



예거 르쿨트르 소개 –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

1833년부터 혁신과 창의성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발레드주의 평화로운 자연 환경에서 영감을 받은 예거 르쿨트르는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문성과 메커니즘의 정확성으로 독보적인 워치메이커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로 알려진 매뉴팩처는 1,300 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 제작을 통해 독창적인 정신을 끊임없이 표현해왔으며 400 여 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랑 메종의 워치메이커는 190 년 동안 축적된 전문 지식과 열정을 바탕으로 정밀한 최첨단 메커니즘을 디자인, 제작, 마감, 장식하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언제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80 여 개의 기술력이 한 지붕 아래 모인 매뉴팩처에서 기술적 독창성과 미적 아름다움, 절제된 세련미가 결합된 파인 워치메이킹 작품을 탄생시킵니다.

jaeger-lecoultre.com